

(해설자료)

남북정상회담, 민족사의 새 지평

2000. 6. 24

남북회담사무국

남북정상회담, 민족사의 새 지평(해설자료)

2000. 6. 24(토)

<목 차>

1. 남북정상회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2. 남북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3. 남북공동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봅니다.
4.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6. 향후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를 전망해 봅니다.
7. 남북정상회담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부록>

- ① 남북정상회담 개최 경과(일지)
- ②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서(4.8)
- ③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서(5.18)
- ④ 남북공동선언(6.15)

1. 남북정상회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 사진 화보

<6월 13일(화)>

김대중 대통령 서울 출발, 인사말

김대중 대통령 평양 도착

김정일 국방위원장 공항에서 영접, 의장대 사열

비행장서 시내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행

김대통령 숙소 도착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제1차 정상회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의례 방문

북측 공연 관람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 환영 만찬

<6월 14일(수)>

김대중 대통령, 김영남 상임위원장 공식 면담

* 영부인 이희호 여사, 창광유치원, 수예연구소 참관

* 대표단 인민대학습당, 지하철, 조선컴퓨터센터, 만수대창작소 관람

김대통령, 만경대 소년학생궁전 관람

제2차 정상회담

김대통령 주최, 답례 만찬

남북공동선언 합의 서명

<6월 15일(목)>

대표단, 동명왕릉 참관, 닭공장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최, 고별 오찬

평양출발 행사

김대중 대통령, 서울 도착

2. 남북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①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이 7.4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 내부 문제이며, 따라서 남북한이 당사자 원칙에 입각, 7천만 겨레의 뜻과 의사에 따라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외세배격 등 배타적 자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한 자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그동안 북한이 자기체제를 위해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왔던 국제공조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경제적 진출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이러한 방향에 협조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 한편, 여기서 말하는 자주적 해결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 왔던 미군철수 주장과 연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 두 정상은 진지한 대화를 통해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 두 정상의 이러한 합의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장래 문제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 당사자가 스스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 ②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한다.

- 남북이 당장 통일을 이룩할 상황이 못되는 현실에서, 남북 정상은 우선 쌍방의 통일방안에 공통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 우리의 통일방안인 '남북연합'은 서로 다른 2체제 2정부를 그대로 놔두고 남과 북이 정상회의, 각료회의 등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현안을 협의하고 집행해 나가자는 방안입니다.
- 우리는 과거부터 일관되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과도단계가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 하에 이러한 통일준비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연합'을 제의해 왔습니다.
- 이 방안은 80년대 말 국회 공청회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서 그 동안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 한편, 북한이 1980년부터 주장해 온 '연방제' 안은 1국가내 2체제를 두고 연방정부가 외교권, 군사권을 갖고 2개의 지역정부가 자치를 하자는 방안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연방제 안은 현 시점에서 이행이 불가능한 방안으로서, 이를 인식한 북한은 1991년 이후부터 연방국가의 외교·군사권을 지역정부가 갖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과거의 '연방제'와는 차이가 있으며, 중앙정부구성 등 몇가지 다른점만 제외하면 우리의 '남북연합' 방안과 유사한 것입니다.
- 남북의 정상이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당국간 협의를 통해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남북간 통일문제 논의의 접점을 찾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 이로써 남북은 통일방안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 북측은 오는 8.15에 즈음하여 실향민,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우선적으로 또 상당한 규모로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이러한 약속 이행을 위해 남과 북은 6월 말부터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생사 및 주소 확인, 상봉, 왕래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등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제도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 현재 북한 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우리가 철도, 도로, 항만, 통신,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해나갈 경우 남한 내부에 머물렀던 경제 규모는 한반도 전체 차원의 경제규모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는 북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어 민족 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또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기술이 결합될 경우

우리의 중소기업들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게 되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 경제 협력과 더불어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신뢰 구축에 기여하게 됩니다.

⑤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한다.

- 남북 정상이 아무리 좋은 선언이나 합의를 하여도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따라서 남북은 책임있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의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해 갈 것입니다.

⑥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한다.

-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온 겨레와 세계 각국에 신뢰를 주지 못할 것입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서울 방문을 약속하였으며, 향후 적절한 시점에 제2차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3. 남북공동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봅니다.

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인사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 추진에 뚜렷한 철학을 갖고 있었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대통령 취임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였고, 특히 지난 3.9 베를린 선언을 통해 정부 차원의 남북경협 추진 필요성을 역설하고 당국간 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에 호응해 음으로써 마침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여기서 남북정상은 남북간 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하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데에 의견을 접근시켰습니다.
- 다시 말해서 이번 공동선언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 평화와 화해·협력이 민족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공감대에 바탕한 남북정상의 역사적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② 남북정상간 상호 이해와 신뢰, 그리고 건설적이고 합리적 자세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 남북의 정상은 장시간 동안 무릎을 맞대고 흥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대화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남과 북의 정상은 민족공동이익을 위해 상대방 입장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회담을 진행, 공통점을 찾아 합의하는 생산적인 대화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특히, 김대통령이 취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한 화해·협력 정책에 대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해와 믿음을 갖고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세계사적으로 탈냉전의 시대 조류가 형성되었고 한반도에도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왔습니다.

- 동구 공산권의 몰락, 소련의 해체, 중국의 개혁·개방 등 냉전체제가 무너진 채 10여년이 지나면서 '냉전의 섬'이었던 한반도에도 탈냉전의 분위기가 성숙되어 왔습니다.

- 이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증대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 왔습니다.

- 주변4국 등 국제사회도 지속적으로 남북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 북한도 이 같은 탈냉전의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대내외정책을 조정하고 우리와 화해·협력을 해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합니다.

④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 정부가 북한과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우리 국민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협조가 뒤따랐습니다.

-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을 기초로, 한·미·일 정책공조를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환경을 조성했고, 중·러 등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에 대한 우리 내부적 노력과 국제적 지지가 상승 작용하면서 북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한 것입니다.

4.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정상간 회담이 개최되었고, 5개항의 공동선언이 합의·발표되었습니다.

- 이번 정상회담은 분단이후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만나고 대화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 그에 더하여, 남북 정상이 남북간 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하며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 두 정상이 앞으로의 방향과 당면 실천과제 5개항을 담은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쌍방 정상간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이해를 돈독히 하고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 최고의 예우로서 환대하였고,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남북의 정상이 민족의 생존과 장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 특히 두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흥금을 터놓고 솔직하게 대화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하였다는 점도 커다란 성과입니다.

-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북 당국간 신뢰와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③ 원칙적으로 남북간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 이를 실천해나가기

위한 구체적 사업에 합의하였습니다.

- 남북 정상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원칙과 방법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실천이 필요하며,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합의해 실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해서도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에 따라 군사직통전화 개설, 상호 비방 중지, 파괴·전복 행위 중지 등 구체적 사업을 협의·해결해 나갈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남북정상간의 합의는 단순히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고 이행되는 것임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④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남북간 신뢰회복의 상징이자 화해·협력의 징표입니다.
- 그 동안 이산가족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사이에 이산가족들은 고령화되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유명을 달리고 있어, 이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 남북정상은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우선 오는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 합의하였습니다.
- 이 같은 합의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써 이번 합의를 토대로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일회성이 아닌 제도화의 수준으로 발전시켜, 생사·주소 확인, 상봉, 왕래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⑤ 남북간 불신과 반목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 사이의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여는 출발점입니다.

-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토대로 대화와 협력,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당국간 회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도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⑥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지속적 추진의 결실이며,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북간 실질협력관계의 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북한측도 우리

의 진의를 이해하고 호응하였습니다.

-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성과가 다시금 확인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남북회담 대비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대표단 구성 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오는 8·15를 기해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에 대해서도 준비하겠습니다.

② 각 분야별로 남북협력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상호 군사적 돌발사태 예방을 위해 군사직통전화 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남북 경협은 호혜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경의선 철도의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등을 추진하며, 향후 남북의 공동이익이 되는 사업, 북측이 제기하는 사업 등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청산결제, 투자보장 등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우리측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분야 협력은 민족 동질성 회복과 상호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단체 및 민간이 정부와 협조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분야에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2001년 세계탁구 대회 단일팀 구성,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북측대표단 참가, 2002년 월드컵 분산 개최 및 단일팀 구성, 경평축구대회(또는 통일축구대회) 부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휴전선 일대에서 말라리아·콜레라 공동방제 사업 등 민족 공동이익의 입장에서 보건·환경분야 협력도 추진하겠습니다.

③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 추진의 일관성을 견지하여,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겠습니다.
- 구체적 대북사업 추진시 국회와 협조하고 관련단체·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④ 국제적인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도 지속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과 미국·일본의 관계 개선, 북한의 ADB, IBRD 가입 등을 지원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ARF(7월), UN총회(9월), ASEM 회의(10월) 등 계기별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과 평화적 해결에 대한 지지 및 국제적 보장이 탄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향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전망해 봅니다.

① 한반도내 탈냉전과 평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탈냉전의 국제정세 속에서 분위기가 성숙된 결과이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탈냉전과 평화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 남북간 정상간의 공동선언이 하나씩 이행되어 나가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장애 요인들이 제거되고 주변국들과의 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② 당국간 경제협력을 축으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예술 등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 금강산 관광사업, 자동차·전자 협력사업 등 기존 사업 뿐 만 아니라 철도·도로의 남북연결사업과 항만·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남북협력이 활발해 질 것입니다.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절차 등 경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방북위주로 진행되던 교류·협력은 사회, 환경, 보건 등 보다 확대된 범위에서 쌍방향 교류·협력으로 발전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③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 진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적 통일 기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 남북정상이 직접 합의한데 따라 조속한 시일내 남북 당국간 회담

이 개최되어 이번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입니다.

- 김대중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앞으로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면 이 같은 문제들도 협의될 것입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가 점차 해체되면서 남북평화공존 및 사실상의 통일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 또한 남북 쌍방은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통일의 기반이 착실히 구축될 것입니다.

④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 남북간 화해와 협력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냉전종식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북한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우방국들과의 관계 정상화가 가속화 될 것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서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는 더욱 굳건해 질 것입니다.

7. 남북정상회담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1) 선발대 파견

- 5월 31일 남북회담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 30명이 판문점을 통해 평양에 도착했다.
- 선발대는 평양 백화원초대소에 머무르면서 정상회담을 위한 숙소 및 현장 점검 그리고 체류일정 협의, 경호·의전·통신·보도 등 실무자접촉을 가졌다.
- 선발대는 북측 체류 기간중 판문점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인원을 교체하면서 480여개의 점검사항을 토대로 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 북한측도 우리측 선발대 인원들이 평양에서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 편의를 보장해 주었다.

2) 남북 왕래

- 김대중 대통령 일행은 분단 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적기를 타고 남북을 왕래했다.
- 비행기는 서해상을 경유해 약 1시간 10분 정도 이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측과 북측간에 관제·통신·영공 경호 등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 또한 정상회담을 전후한 기간에 서울과 평양의 공항간 기상상태에 대한 정보 교환도 이루어졌다.

3) 대통령과 영부인 참관 활동

- 김대중 대통령은 북측에 머무르는 동안 만경대 소년학생궁전, 만수대 예술극장을 돌아보고 공연도 관람하였다.
- 한편, 대통령 영부인 이희호 여사는 북측의 평양산원(산부인과 병원), 창광유치원, 수예연구소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 또한 이희호 여사는 북측의 여성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이화여전 시절에 가르쳤던 은사를 50여년만에 상봉하기도 했다.

4) 회담관련 주요 시설

- 김대중 대통령 일행은 북측이 마련한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머물렀다. 대표단 중 일부는 백화원 영빈관에서 3km정도 떨어진 주암산 초대소에 머물렀으며, 기자단은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 백화원 영빈관은 북측이 자랑하는 최고급 시설로, 그동안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한 우리측 국무총리 일행이 평양체류시 머물렀던 곳이다.
- 이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상봉과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최한 고별 오찬도 있었다.
- 한편,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간 의례 방문과 공식 면담이 이루어진 곳은 만수대의사당(우리의 국회의사당에 해당)이다.
- 김영남 위원장 주최 만찬이 이루어진 곳은 인민문화궁전으로, 90~91년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 곳이다.

- 김대중 대통령이 주최한 답례 만찬은 목란관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답례 만찬을 위해 서울에서 인원과 식재료를 공급했으며, 북측의 인원과 함께 만찬을 준비했다.

5) TV 생중계 실시

- 김대중 대통령 일행이 서울을 출발, 평양에 도착하는 장면, 평양 시내를 이동하여 숙소에 도착하는 장면, 김대중 대통령 일행의 평양 출발 장면 등은 우리측 인원과 장비에 의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 그 외 오·만찬, 관람, 남북공동성명 서명 장면 등은 시차를 두고 실행중계 됨으로써 우리 국민과 전세계에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 TV 생중계를 위해 우리측 요원들이 선발대로 평양에 들어가 점검을 하였으며, 우리측 SNG 장비도 북측에 반입되었다.
- 남북이 분단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를 실시함으로써 남북간 방송교류·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

6) 북측의 환영 태도

-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측의 언론 매체들은 그 동안 해오던 대남비난 강도를 현저히 낮추어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조성했다.
- 정상회담 기간중 북측 언론매체들은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 공동선언 발표 등에 이르는 전과정을 대서특필하고 반복적으로 보도하였다.

-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비행장에 나와 김대통령을 직접 영접·환송하였으며, 숙소와 비행장에 이르는 사이에 김대중 대통령과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이는 과거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의 방문 경우를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었다.
-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동안 연도에 도열한 60만 평양 시민들은 꽃을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고 일부 현지 북한 주민들은 감격에 겨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 이같은 환영 인파는 과거 중국의 정상급 인사가 방북할 때 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것이었다.
- 우리측 대통령 일행이 평양에 머무르는 동안, 그곳의 북한 인원들은 정중하고 따스한 자세로 우리측을 대했으며, 활동에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었다.

7) 국내의 언론과 주변국의 반응

- 정상회담의 개최를 취재하기 위해 서울 프레스센터에 등록된 취재 기자는 국내외를 합쳐 300여개사 1,300명(외신 173개 503명)에 이르렀다.
- 이는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단일 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이며,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 또한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데 대해 세계 주요 언론은 일제히 톱뉴스로 이를 보도했으며, '마침내 남북이 지난 55년간의 반목과 대결을 넘어 화해와 협력으로 나가는 새시대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미·일·중·러 등 주요국 인사들과 유엔 사무총장은 정상회담 개최전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회담 종료후 회담

성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로마 교황도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가 남북한 정상회담에 고무됐다. 오랫동안 헤어져 있는 이산가족이 상봉하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 모시 요시로 일본 총리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선언에 대해 "역사적 쾌거"라고 평가했다.
- 중국은 6.15 정부 성명을 발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5개항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가치있는 조치로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김대통령과의 전화통화(6.19)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남북한 정상 모두에게 축하하며, 이는 양국 모두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부록>

1. 남북정상회담 개최 경과(일지)

<1998년>

○ 2.25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 대북정책 3원칙 발표,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

○ 3.1 김대중 대통령 3·1절 기념사

- 남북특사 교환, 이산가족 생사확인·상봉실현 촉구

○ 4.11~17 남북당국대표회담 개최 (중국 북경)

-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논의, 성과 없이 종료

○ 8.15 김대중 대통령 8·15 경축사

- 대북정책 3대원칙 견지, 모든 대북경제협력 지원 권장, 대통령 특사 평양 파견 용의, 장·차관급의 남북상설대화기구 창설 제안, 분야별 공동위원회 가동 촉구

<1999년>

○ 1.4 김대통령 주제, 국가안전보장회의

- 통일관련 3대목표와 기본방향 결정

○ 2.3 북한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고위급정치회담 제의

- 3개의 선행실천 조건 제시
- 4.23~6.3 남북 비공개접촉 (중국 북경)
 - 남북차관급회담 개최 합의
- 6.22~7.3 남북차관급회담 개최(중국 북경)
- 8.15 김대통령 8·15 경축사
 - 남북 정부차원의 교류 희망 강조
- 9.27 북한 백남순 외상, 통일 3대원칙과 북한의 고위급정치협상 제의에 남측이 응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언급
- 10.19 김대통령 국회시정연설
 - 남북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피력

<2000년>

- 3.9 김대통령 베를린 선언
 - 남북 경협을 통한 북한 경제회복 지원
 -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간 평화공존
 - 이산가족문제의 해결
 -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 3.17~4.8 비공개 특사접촉(중국, 상해 및 북경)
 - 우리측 특사 :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 북측 특사 :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 4.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중국 북경)
- 4.10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서울과 평양 동시)
- 4.18 우리측은 판문점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접촉 제의
- 4.19 북측 이에 동의
- 4.21 쌍방 대표단 명단 교환
- 4.22 제1차 준비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
 - 우리측은 절차문제에 대한 기본입장 및 「베를린선언」을 중심으로 한 협력과제 논의 방향 제시
 - 북한측은 우리측 제안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 방안을 차기접촉에서 제시하겠다고 언급
- 4.27 제2차 준비접촉 (판문점 「통일각」)
 - 북한측은 정상회담 절차문제에 대한 우리측 안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입장 표명
 - 대표단 규모, 정상회담 형식, 왕래방법 등

○ 5.3 제3차 준비접촉 (판문점 「평화의 집」)

- 쌍방 각기 「절차합의서 안」 을 제시, 항목별 구체적 내용을 집중 협의
- 회담회수,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상당부분에 의견 일치

○ 5.8 제4차 준비접촉 (판문점 「통일각」)

- 취재 기자단 수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합의

○ 5.15 제5차 준비접촉(판문점 「평화의 집」)

-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최종 타결

○ 5.27 우리측 선발대(30명) 명단 통보

○ 5.31 선발대 평양 향발(판문점 경유)

- 경호, 통신, 의전, 보도 분야 세부실무협의 및 현장 답사

○ 6.5 우리측 대표단(130명) 명단 통보

○ 6.9 북측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 각서 접수

○ 6.10 북측, 기술적인 준비관계로 정상회담을 하루 연기(12→13)할 것을 제의, 우리측 이를 수용

- 6.11 정상회담 취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 프레스센터 개소
- 6.13~15 남북정상회담(평양)
-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2.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서(4.8)

<남북 합의서>

남과 북은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이 금년 2000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평양 방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쌍방은 가까운 4월중에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3.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 합의서(5.18)

<남북합의서(2000년 4월 8일)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4월8일 합의서에 따라 4월 22일부터 5월18일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준비접촉을 가지고 실무절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구성과 규모

- ① 남측 대표단 수행원은 130명으로 한다
- ② 남측 대표단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2. 상봉 및 회담 형식과 횟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상봉과 회담은 최소한 2~3회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3. 상봉 및 회담 의제

상봉 및 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한다.

4. 체류일정

- ①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0년 6월12일부터 6월14일까지 2박3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구체적인 체류일정을 방문 10일 전에 남측에 통지하며 쌍방이 협의하여 이를 확정한다.

5. 선발대 파견

① 남측은 30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대표단 방문 12일전에 북측지역에 파견한다. 남측 선발대는 필요에 따라 판문점을 통하여 왕래할수 있다.

② 남측 선발대의 체류일정과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는 남측 선발대의 북측 지역 도착 직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왕래절차

① 남측 대표단의 왕래는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되 항공로로 하는 경우에는 남측 비행기로 하며 육로로 하는 경우에는 북측 자동차로 한다.

② 남측 선발대는 북측 자동차를 이용하며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한다.

③ 남측은 정상일행의 명단을 방문 7일전에 북측에 넘겨주며 선발대의 경우에는 방문 4일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며 그 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7. 편의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 북측은 남측 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2회의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8. 신변안전보장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 명의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침을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9. 수행원, 기자의 표지 및 증명서

① 쌍방은 자기측 수행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③ 남측 수행원과 기자는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10. 상봉 및 회담장 표지 및 시설

①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② 상봉 및 회담장에는 회담에 필요한 시설의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③ 북측은 상봉 및 회담장과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제공한다.

11. 상봉 및 회담 기록

쌍방은 상봉 및 회담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12. 상봉 및 회담 보도

① 상봉 및 회담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되 필요에 따라 공동보도문을 작성·발표할 수 있다.

②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설치와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텔레비전 영상 송출을 위한 전송로 및 위성중계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③ 북측은 남측에 실황중계를 위하여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

13. 기자의 취재활동

① 북측은 남측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한다.

14. 기타 실무절차 문제

- ① 남측 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 전화 회선과 함께 예비통신으로 위성통신망을 이용한다.
- ②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고위급회담 관례에 따른다.

15.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5월 18일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준비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통일부 차관 양영식

북남합의서 이행을 위한 준비접촉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참사 김령성

4. 남북공동선언(6.15)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